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한 조각 마음 차 한잔에 담아”

다유구덕(茶有九德)

며칠 전에 인터넷의 상위검색어로 갑자기 녹차가 떴다. 중국의 한 의대에서 녹차속의 화학물질이 사람의 기억력과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발표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이미 몇 백년전에 우리 스님들은 다 알고 계셨던 사실들이다. 초의스님의 동다송에 이미 그런 사실이 적혀있어서, 초의-범해 각안스님으로 이어지는 삼대(三代)제 응송(應松)노스님께서 다화(茶畫)에 다유구덕(茶有九德)이라 화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단 두 줄의 선으로 목판으로 된 소박한 찾상을 그리고, 그 위에 찻한 하나 다관 하나를 그렸다. 단정한 글씨로 차가 지닌 이홉 가지 덕을 쓰셨는데, 효당 최범술 님의 글은 많이 보였어도 응송노스님(1893~1990) 친필과 그림은 처음 보았다.

응송스님 승가 다회 전통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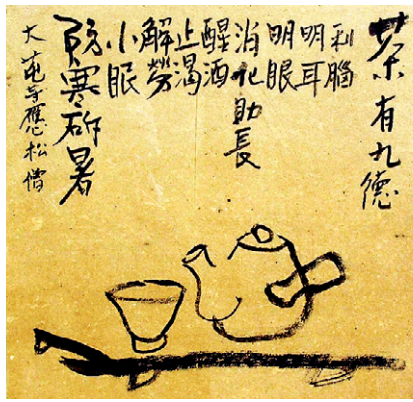
한국 차맥 원류 복원 일등 공신

실제로는 한국 승가의 정통다도를 익히고 지키셨던 분은 응송스님인데 차배우는 다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제다법과 차이론을 제대로 지금까지 있도록 노력하신 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한국 승가의 다화(茶會)전통은 거의 잊혀질 뻔했다.

응송스님은 불에 타 없어졌던 원래 일지암 위치를 알려줘 복원불사를 무사히 마치게 해서 한국차맥의 원류를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다. 그럼에도 응송노스님을 아는 다인이 많지 않고, 그 친필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몇 번을 별러서 강릉 능가사에 가서 화가이신 법관(法觀)스님을 뵈고, 그 다실에서 스님의 다화를 보니 감개무량하다.

화제의 내용은 ▷이뇌(利腦, 두뇌활동에 이로움) ▷명이(明耳, 귀가 밝아짐) ▷명안(明眼, 눈이 밝아짐) ▷소화조장(消化助長, 소화를 크게 도움) ▷성주(醒酒, 술취함을 깨움) ▷지갈(止渴, 갈증을 없앴) ▷해로(解勞, 피로를 풀어줌) ▷소면(小眠, 잠을 줄여줌) ▷방한파서(防寒破暑, 추위를 막고 더위를 없앴) 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박하게 관지(款識)도 없이 대운사(大運寺, 지금의



대운사 응송스님 '다유구덕' (강릉 능가사)

해남 대흥사) 응송승(應松僧)이라 글을 쓰셨는데 은은한 감동이 전해진다.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응송스님의 슬화에 의하면 사찰의 다회는 우선 선방의 벽에 달마화상을 걸고, 그 앞에 목판으로 만든 투박한 다상을 놓았다. 그 위 삼베로 만든 다포를 깔 다음 향로, 다기와 쌍춧대에 불을 밝히고 일단 참선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옆에 지필묵(紙筆墨)과 사군자(四君子) 화분을 들여놓는데, 꽃은 너무 화려하다 하여 기피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후에 다동이 차를 달여서 다반과 다완을 가지고 들어와 올리면 이를 마시며 다선일치의 선경(禪境)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요즘 승가에서는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비키니를 입은 서양여인네 같은 커피를 값도 싸고, 향도 좋아서 비싼 녹차가격과 가짜 보이차에 지쳐버린 스님들을 위로하는 중이다.

그러나 불교를 지킨 녹차로 다시 돌아갈까 정적인 듯하다.

여말선초 시기의 우리 불교를 대표했던 한허 득통(函虛得通, 1376~1433)스님의 다시(茶詩)를 읽으며 글을 마친다.

一椀茶出一片心(일완다출일편심)

한 잔의 차에서 한 조각의 마음이 나오오,

一片心在一椀茶(일편심재일완다)

한 조각 마음은 또한 한 잔의 차 안에 담겼네.

當用一椀茶一嘗(당용일완다일상)

마땅히 이차 한 잔 맛보시게나

一嘗應生無量樂(일상응생무량락)

한 번 맛보면 한없는 즐거움이 생겨난다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박물관서 만나는 명품 고려불화”

국립중앙박물관 '나한도와 고승 진영'展

나한은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하여 해탈을 얻은 아라한이다. 그래서 사찰마다 나한전 혹은 영산전에 십육나한도 혹은 오백나한도가 봉안돼 있다. 나한상은 높은 신통력을 가졌다고 해 불자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됐다.

고승들의 진영은 어떤가? 대표적인 고승은 여러 사찰에서 진영을 제작해 추모했다. 또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전통이 있는 선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스승의 진영을 그려 모심으로써 가르침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법맥을 확인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 서화관 불교회화실이 '나한도(羅漢圖)와 고승 진영(高僧眞影)'으로 새롭게 단장해 관람객들을 찾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한도를 비롯 지공화상, 화담경화 등 고승 진영 15점이 전시된다.

특히,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중 '혜군고존자(慧軍高尊者)'와 '의통존자(義通尊者)' 두 점은 이번 전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명품이다. 고려 1235~1236 그려진 연작의 일부로 추정되는 이 오백나한도는 나한의 신통력을 빌어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던 고려시대 나한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립 중앙박물관은 “현재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 흩어져 남아 있는 작품이 14점 정도인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그중 7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한다.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고 어두워진 고려불화 오백나한도는 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시에만 아껴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승 진영 부분에서는 한 시대의 불교를 풍미했던 승려들의 초상을 만날 수

서화관 불교회화실 15점 전시

혜군고존자 등 나한도

지공화상·화담경화 진영

있다.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함께 임진왜란 3대 의승장의 하나였던 기허영규(騎虛靈圭, ?~1592), 청허계 편양파(淸虛休靜, 1520~1604)의 계보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던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 문파의 학승으로 이름 높았던 화담경화(華潭敬和, 86~1848) 등 쟁쟁한 조선시대 스님들의 진영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 서화관 불교회화실이 '나한도(羅漢圖)와 고승 진영(高僧眞影)'으로 새 단장에 관람객들을 찾는다. 사진 왼쪽은 지공화상 진영, 오른쪽은 혜군고존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 서화관 불교회화실이 '나한도(羅漢圖)와 고승 진영(高僧眞影)'으로 새 단장에 관람객들을 찾는다. 사진 왼쪽은 지공화상 진영, 오른쪽은 혜군고존자.

화담경화는 마치 경전을 읽다가 잠깐 얼굴을 든 듯 펼쳐진 책 위에 안경을 벗어 놓은 모습으로 그려져, 그의 높은 학식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 선종의 초조로 추앙받는 달마대사, 고려 말기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지공화상(指空和尙, ?~1363)은 인도 승려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영으로 그려진 특수한 경우

다. 지공화상은 보통 승려들과 달리 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진다. 불화승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무경관주(無鏡觀周, 19세기 활동)의 진영도 주목할 만한데,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롭게 인수되어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다. 전시는 2013년 5월 12일까지다. (02)-2077-949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중생의 염원 화폭에 담았죠”

이용애 '민화의 조형적 모색'展

“민화 작업은 내게 있어 기도와 행복이다”

민화 작가 이용애 씨가 10월 3~9일 '민화의 조형적 모색'을 종로구 경운동 장운선 갤러리에서 연다. 이 씨는 이번 전시에서 모란도까지 호랑이 등을 소재로 한 민화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이 씨는 “민화는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 전 많은 생각과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도안한다. 현실에서는 힘들지만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이상세계가 그 속에는 있다. 모든 염원을 담아 기도하듯이 민화 작업을 한다. 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전한다.

민화는 민중의 삶과 항상 함께 해온 그림이다. 해학과 풍자로 사물을 표현하며 일상생활 곳곳에 놓여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 해왔다. 작가는 이런 민화 작업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씨는 “민화에 들어 있는 상징성, 해석성, 은은한 향과

같은 소박함이 너무 좋다. 하나하나의 작업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채색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그림을 느끼고, 완성 후의 모습을 상상함도 큰 즐거움”이라고 설명한다.

민화에 등장하는 사물 하나하나를 기복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란은 부

화병에 'HAPPY' 그려 넣어

현대적 해석 '행복' 눈길

10월 3~9일 장운선갤러리서

귀영화를, 석류와 포도 물고기는 다산을, 바위와 소나무는 선비 정신을, 거북과 국화 천도복숭아는 장수를 뜻한다.

작가는 이런 민화의 고전적 의미에 현대적 해석을 가해 눈길을 끈다. “작품 '행복'은 화병에 복(福)자 대신 HAPPY를 써 넣었어. 현대인들에게 좀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의미죠. 일반인이 쉽



이용애 작. 행복

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이 민화인 만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번 전시에서 호랑이와 모란, 어디서 왔나, 동행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줄 것이다. (02)730-3533

정혜숙 기자

불교문화제의 추억 사진으로 남겨요

불교중앙박물관 공모전

불교중앙박물관이 2012년 사진공모전을 연다. 주제는 문화제에 얽힌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담으면 된다. 박물관은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혹은 스캔한 사진들을 우편 및 이메일, SNS로 접수 받는다.

응모 사진들은 특별전 기간동안 전시되며 당선자에게는 1등(1명), 금품탁(1돈), 2등(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3등(2명) 문화상품권 5만원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buddhism.or.kr)를 참조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며 당선 사진은 10월 17일~12월 9일까지 '불교문화제와 함께한 사진전'을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e-메일: cbmuseum2011@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cbmuseum/ 트위터: cbmuseum2011 (02)2011-1960

(주)에스컴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10월 감사 특가 919,000원(유류할증료 불포함)**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 낙가산) **7일** | 135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4일** **요금문의**
 □중국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4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189만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라오스 직항 **5일** **129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승,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9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9월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